성수기에도 소비는 위축

서울시에서 생계유동이 없어진지 4개월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3월부터 생계단축을 하겠다는 발표에 생계실동들이 생계판매진영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간 언론가는 도계유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되었지만, 현실여건이 성숙되기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행사들을 앞두고 간이도계장 시효가 끝나는 것과 배를 맞추어 실시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도 문제가 많았던 도계유동이 별다른 큰 저항없이 시행된 것이 신기할 정도로 생계실동들이 험난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생계유동이 없었음에도 아직도 도계유동이 정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없는 것은 군정적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도계유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는 의혹과도 도계유동정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억제 요인이다. 생산자, 유동업 자, 소비자, 도계장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본다.

첫째, 소비의 부진이다. 아직도 소비자들의 인 식이 병계 혹은 상하거나 오래된 많이 아난가 하는 불안매몰에 구매를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도원에 17개의 도계장에서 15만수를 처리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7시까지는 도계가 완료되어야 하니 자연 방동에 도계를 하여야 하고, 짧은 시간에 일시에 몰리니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 (본지 4월호 참조) 도계장 입장에서 악기에 악의를 해야 하니 즐겁게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수를 처리하려니 시험도 체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품질문 제가 생기게 된다.

방향이 충분치 못해 슈퍼마켓에 진열된 닭고 기 중에 결물이 번개째로 뿌리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한동안 닭고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도록 만 들어 버린다.

상인 입장에서도 초저녁부터 도계수행을 가다 리느라 줄을 서야 하고 장량 대사의 비용부담도 늘어간다. 낮에 첫째 도계를 두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배달되지 않느냐고 속편한 예절을 할 수도 있지만, 상인들은 도계하지 못한 시간에 날은 닭과 남은 재고물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저녁부터 도계장에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여론을 수 없는 것이 소비자들이 1,000수 소비가 가능해도 꺼腩 날으면 처리가 곤란해서 7~8백수만 판매하고 오후 늦게는 닭이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초기에는 판매예상 수수를 도계하였으나 오 후가 되어 도계후 5~6시간 지난후 변하기 시작하면, 휴무료로 처분해서 유통침해가 혼란해
지고 생산자에게 탕을 구매할 때 사기 구입하여 야 하기에 때문에 탕값하락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여름철에는 발리 상하기 때문에 닭염관련에
고 겨울에는 안환경제고추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는 위축되고 같은 하락하게 된다.

지난 4개월 동안 도매상 10%, 소매상 15% 정도가 매입한 것을 보아도 닭고기유통이 얼마나 힘들어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생산농가에서 900원(kg당)을 받을 경우 도제하면 23~27%의 감량으로 (별과 내장) 도제수수료 80원을 포함해서 kg당 1,205원이 된다. (900원 + 900×\frac{25}{100}원 + 80원) 결국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판매하는 상가가격 1,200원을 넘겨져야 농장에서 900원 이상 잡값이 오르면 소비는 위축된다.

현재 ILT 등으로 브로일러 단지에서는 하이 브로일러 크리 기르지 못하고 서서히 줄어들어 생산비의 차이가 있지만, 사료값 인상으로 생산비가 900원을 넘겼아 육계산업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진다.

다행히도 매스컴을 통한 선언에 힘입어 삼계 탕소비가 증가한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나, 닭고기소비의 주중을 이루어야 할 가정소비의 위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2천여개의 소매점과 수 집장을 합하여 3,500여명의 유통상인이 있는데, 지난 19일 유통업자 대표와 생산자대표들이 현안을 다루기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정기적
인 모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아 브로일러산업의 일산에 받은 전망이 기대된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가장을 철저히 하고들여 생산성도 크게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육계종료 개
선은 정부의 육류소비구조개선 정책과도 일치하게 된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그치고 해남
하며 시간이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다면 육계산업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가객 안정이 발전의 기반

물가가 한자리숫자 상승에서 이제는 0자리
숫자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물
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큰 견결이나 운행
앞에도「인플레이와 함께 삼겹살 시대는 지났을
다」는 표어를 볼 수 있다.

그동안 물가안정에 농수산물이 기여한 공로는
크며, 이는 미국의 농산물가격 하락에 힘이 없은
바 크다.

그동안 하락했던 제한금이 회복하자 물가당
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제한처럼 물가
안정에 기여한 품목이 없으며, 평균 물가상승율
우리나라의 대부분 농산물이 고가로 가격, 재고가 경제적으로 소비가 전중되어 있어 가격의 급폭이 크고 연중 떨어져 가격이 폭락할 때를 기준으로 값이 회복되려 하면 저항을 받게 된다.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장치 없이는 항상 양축가는 고달을 수 밖에 없으며, 이재는 가격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새로운 발전을 기할 수 없다.

브로일러의 계열화가 추진되고 있고 재판도 집단센터 (GPC)를 통해 공급망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음은 다른 일 이 아닐 수 없다.

가격의 안정없이는 새로운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브로일러 시설에 자금지원 필요

경기도 일원에서 간여제사 철거명령이 내려 촉산업 중에서도 양계업이, 양계업 중심에도 브로일러가 피해를 입기 수급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축산물 장기수요확충을 보면 91년도에는 81년에 비해 약 3배의 탕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요량은 모두 자급할 경우 현재의 3배에 달하는 계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 일원에는 사실상 축산물이 가 능한 토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도 국토관리법, 상수도보호지역, 전대농지, 상대농지, 그린벨트, 녹지, 산림보호
지역을 건축에 제한 요소가 많으며, 건축할 수 있는 곳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시설을 근대로하여 평당 사육수수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브로일러 농가들이 영세하여 자력으로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형편이고, 또 능력이 있어도 가격이 불안정하여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보장도 안될 뿐더러 수익률이 낮아 투자를 유도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브로일러산업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농협을 비롯한 자본 금융지원 제도가 잘 발달한지인에도 불구하고, 축산환경 정비 리스협회(재단법인)같은 것이 있어 환경오염 규모확대, 사료생산비용과 기계화 등 제반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임대하여 주고 있고, 이를 생산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계기구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도 좋은 것이다.

국내에도 리스회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높아 양계업자들이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축산기금을 관리하는 축협중앙회에서 앞으로 리스업무 등을 취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대책없는 간이계사철기형은 양계상품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위생적인 종이 난좌를 사용합니다

- 10개들이 난좌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30개들이 양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착물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흥동 98-1 (전화)고등우체국 77 번